

행복한 책임기

외르크 쿠프케의 '시간과 권력의 역사' <알마 케>

오는 30일이 추석이다. 아마도 온 가족이 모여 차례를 지낸 뒤 성묘를 가지 않을까 싶다. 29~31까지 공공기관은 물론 거의 모든 사무실은 문을 닫는다. 가족이 없는 누군가가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싶어도 휴식을 강요받는다. 이렇듯 달력(시간)은 개인의 다양성을 인정하기보다는 일방적으로 뭔가를 하도록 명령한다. 우리는 다이어리 속의 달력이나 스마트폰 일정관리 앱에 해야 할 일을 적으면서 자신이 시간의 주인이라고 착각할 뿐이다.

달력에는 일상을 결정하는 시간의 리듬이 있고 집단이나 개인에 관한 역사적 접근들이 상징인 기념일과 축제들이 기록되어 있다. 한 나라의 달력만으로도 그 나라의 정치, 경제, 종교를 엿볼 수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달력

는 세 번째 집정관 취임을 앞두고 민회의 선거를 치르는 가운데 행정과 부채 문제를 풀기 위해 정치영역에서 개혁을 추진했다. 개혁 집정관 역시 개혁에 포함됐다. 개혁은 기원전 46년 후반의 율리우스 칙령을 기반으로 실행됐다. 그레고리우스, 교황 그레고리우스 13세가 1582년 10월 4일을 15일로 옮기도록 하면서 사용됐다. 교황이 개혁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은 천문학에 근거한 결정이 라기보다는 종교적인 권위와 인정에 관련된 문제였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달력은 로마의 율리우스 카이사르



달력 속에 권력이 숨어 있다

은 고대에 만들어졌지만 지금까지 그 형태가 거의 변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과 밀착된 관계로 어떤 규율을 느끼지 못한다. 그러나 그 속에는 굉장한 권력이 숨어 있다.

달력은 국가가 성립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였다. 일단 천문학이 발달하지 못했던 고대에는 달력을 만드는 것 자체가 어려웠다. 고급 지식이기도 했지만 감히 하늘의 움직임을 알리고 하는 것이 일반 백성에게 허락되지 않았다. 지배자와 백성, 군대와 고대 국가의 하드웨어라면 달력은 중요한 소프트웨어에 해당하기에 달력이 없으면 정치·행정 자체가 불가능했다.

고대로 로마의 지배자 카이사르

가 만들고, 그로부터 1600년 후 '부활절 날짜 오차'가 발단이 되어 그레고리우스 13세가 고친 것이다. '그레고리력'으로 불리는 현대 달력은 전 세계 거의 대부분 국가가 사용한다. 이것을 기준으로 우리의 모든 일상이 움직인다. 달력만으로도 따지자면 서력기원을 사용하는 모든 나라는 기독교 문명권의 속국이라고 해야 할지도 모른다. 해를 셈하는 것만이 아니라 1년을 12달로, 한 주일을 7일로 나누는 것도 모두 서양 달력에서 비롯된 관습이다. 예나 지금이나 달력은 주권국가의 상징인 셈이다.

신라시대 김실놀이에서 유래한 추석을 며칠 앞둔 서기 2012년은 단군기년으로 보면 4345년이고, 공자기년으로는 2563년이며, 불기(佛紀)로는 2566년, 이슬람력으로는 1391년에 해당한다. 개인적이거나 집단적인 정체성을 형성하거나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달력(시간)을 활용해야 하는지는 한번 즈음 고민해볼 일이다.



차노희

2009년 광주일보 신춘문에 단편소설 당선

“예술이 된 광주, 온전히 느끼고 싶어요”

서도호씨 작품 '틈새호텔' 25명 모집에 121명 몰려 비엔날레재단, 작품 체험자 발표 내달 2일로 연기



설치미술가 서도호(50)씨의 작품 '틈새호텔'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광주를 온전히 느끼고 싶다”는 사연을 내세워 직접 작품을 체험하려는 신청자들이 몰려들면서 애초 선정 일까지 늦추기로 했다.

광주비엔날레재단은 26일 '2012 폴리(Folly) 프로젝트'의 하나로 추진했던 서씨의 틈새호텔 작품 체험자 발표를 다음달 2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비엔날레재단은 지난 7일 '틈새호텔 작품 숙박 체험 희망자'에 대한 공모를 거쳐 지난 25일 선정자를 발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애초 모집 인원(25명)보다 4배가 넘는 121명의 신청자가 몰려들었다. 이들 모두가 '꼭 체험해보고 싶다'는 나름의 절실(?)한 사연을 첨부하면서 신중한 심사를 통한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늦추기로 했다. 비엔날레측 입장이다. 희망자들의 경우 광주(40명), 서울·경기(35명), 부산·대구·울산(15명) 등 전국에서 신청서를 냈고 여성 신청자(90명)가 많았다. 사연도 다양하다.

서울에 사는 26살 여성은 “광주를 방문했을 때 서울에서와 똑같은 커피를 마시고 똑같은 사람들과 스마트폰을 마시고 똑같은 사람들과 스마트폰을 대화하며 광주를 온전히 느끼지 못하고 떠나버리는 무례를 범하고 싶지 않다”고 했고 서울 한 초등학교 교사는 “작품 체험을 한 뒤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싶다”고 적었다.



서도호씨가 광주비엔날레 개관에 맞춰 선보인 '틈새호텔' 작품 내부.

<광주비엔날레 제공>

자신을 직장인 대학생이라고 밝힌 여성 신청자는 “광주사람도 모르는 광주, 다른 지역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모습의 광주, 외국인들이 방문하고 싶어할만한 광주 모습을 보여줄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체험을 희망했고 대전에서 신청서를 낸 한 여성은 “부산에서, 대전에서, 뉴욕에서 기숙사 생활만 8년째로 집이 많이 그리웠다”면서 “틈새호텔이라는 새로운 집을 경험해보고 싶다”고도 했다. 또 다른 대전 신청자는 “하나의 예술이 된 광주 곳곳에서, 하룻동안 광주 유목민이 돼 함께 하고 싶다”고 적었다.

전주의 신청자는 “관광객에게는 특별한 기억을, 인근 상가에게는 매출 증대로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까지 노릴 수 있는 찬사를 보낼 만한 프로젝트”라며 추켜세우기도 했다.

서씨가 '한국을 대표하는 10명의 생존작가'로 꼽히는가 하면, 삼성미술관 리움에 개관 이래 국내 생존 작가로는 처음으로 연 개인전을 열어준

스타 작가라는 점도 한몫을 했다. 그의 개인전 '집 속의 집'전을 본 뒤 체험 신청서를 냈다는 경우도 많았다.

한편, 틈새호텔은 기아자동차의 붕고 III(1.2t) 트럭 위에 얹혀져 이곳저곳으로 움직이는 호텔로, 9㎡(2.7평형)의 공간에 고급 호텔 수준의 편의 시설을 갖췄다. 비엔날레재단은 다음달 2일 선정자를 확정할 뒤 비엔날레가 끝나는 11월까지 호텔 숙박 체험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김지음기자 dok2000@kwangju.co.kr

‘무등가요제’ 참여하세요

10월5일까지 접수... 13일 총장축제때 본선

제8회 무등가요제가 오는 10월13일 오후 7시 총장축제가 열리는 금남로 야외 특설무대에서 열린다.

(사)한국문화예술연합회(회장 김효중)가 주최하는 이번 가요제에는 만 17세 이상 48세 미만 남녀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접수 마감은 오는 10월 5일 오후 8시까지다.

예선은 오는 10월6일 오후 3시 광주 동구청 뒤 KT 정보통신센터 3층

에서 열린다. 본선 심사는 이호섭 작곡가 등이 심사를 맡으며 대상에게 상금 200만원과 트로피가 주어지는 등 총 4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한편 13일 열리는 본선 경연에는 가수 현숙, 김수희, 최유나, 원크 등 초청가수들의 공연이 열리며 벨리칸스 등 다양한 무대를 선사한다. 문의 010-2684-6000.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영호남 성악가들 무대... 설레는 가을밤

광주벨칸토성악아카데미, 10월5일 금호아트홀

광주벨칸토 성악아카데미(회장 안재섭·사진) 정기연주회가 오는 10월5일 오후 7시30분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열린다.

영호남 교류 음악회로 마련된 이번 연주회에는 광주, 전주, 부산, 대구 등 4개 지역 성악가 30여명이 참여, 다양한 무대를 선보인다.

부산성악아카데미는 한국 가곡을 준비했다. 정혜리·황성화·노미숙씨 등이 '강건너 불이 오듯', '꽃구름 속에' 등을 부른다.

오페라 아리아로만 레퍼토리를 마련한 전주 성악아카데미는 '일 트로바토레' 중 '울부짖는구

나 저 불꽃이', '투란도트' 중 '얼음장 같은 공주의 마음도' 등을 들려주며 대구 성악아카데미는 '캣츠' 중 '메모리', '지킬 앤 하이드' 중 '지금 이순간' 등 뮤지컬 곡들을 선사한다.

광주벨칸토성악아카데미는 외국가곡을 선택했다. 이진희·차선영·김선희·구제창씨 등이 '그 여자에게 내 말 전해주소', '허무한 마음' 등을 부른다. 문의 010-3377-4981.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이해인 수녀 연가곡집 '편지'

삶에 대한 감사·그리움 담아

이해인 수녀가 쓴 편지 형식의 연작시에 곡을 붙인 연가곡집(連歌曲集) '편지(Letters)'가 나온다.

곡가박송은 26일 “작곡가 박경규가 우리 삶에 위안을 주는 이해인 수녀의 연작시 '편지' 18편을 선율로 작곡한 연가곡집 '편지'를 출판한다”고 밝혔다.

연가곡집 '편지'는 기존 한국 가곡과는 다른 쉬운 '대중가곡' 풍으로, 이해인 수녀의 육성 노랫말 낭송도 곁들였다. 대중이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도록 바리톤 음역으로 설정했으며, 바리톤 송가창 교수가 18곡 전체를 노래한다.

이해인 수녀는 “사랑, 이별, 추억, 기도, 바람, 구름, 노을, 열매, 가을이 들려주는 얘기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는데- 그동안 써놓은 가을에 쓴 연작시 '편지'를 연가곡집으로 들려줄 수 있어 행복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SINCE 1982

창업 30주년 국제보청기

30% 할인봉사 OFF SALE

www.kjhr.com

국제보청기 독일 한사톤(HANSATON) 정품만 취급합니다.

본점 062) 227-9940 총장점 062) 227-9970
 목포점 061) 262-9200 장흥점 080) 222-9975
 서울점 02) 765-9940 순천점 061) 752-9940

보약, 홍삼은

성인병 노화방지는
 ·적절한 운동
 ·마음에 평안
 ·음식조절입니다

건강한 생활! 장수의 비결!

북고당 한약방

가족의 건강~ 환한 웃음~ 지켜 드립니다.

6년근 홍삼 100% 60포 → 15만원(주문판매)

홍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179-59 T. 062-369-9227

농협 653-12-003100
 에금주 박주환

두충오가피
 활기찬 삶! 생활의 활력소!
 60포 → 90,000원